

국제경제사회분류 전문가그룹회의 참가 결과보고

2009. 9

통 계 청
통 계 기 준 팀

- 목 차 -

1. 출장 개요	1
2. 회의 일정	2
3. 주요 회의 내용	3
4. 평가 및 시사점	12

1

출장 개요

1. 회의 개요

- 회의명 : 국제경제사회분류 전문가회의
(Expert Group Meeting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)
- 회의 목적
 - 최근 개정된 국제표준산업분류, 국제표준직업분류 및 중앙생산물분류의 이행 및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 계획 논의
 - 국제표준교육분류, 환경 및 에너지관련 분류의 검토 작업 계획논의
- 회의 기간 및 장소 : 2009.9.1.(화)~4.(금), 미국 뉴욕(유엔 본부)
- 출장자 : 통계기준팀 조성일사무관, 이은구주무관

2. 주요 의제

- 국제표준산업분류 이행 가이드 검토
- 국제표준산업분류 및 중앙생산물분류 세부해설서 검토
- 국제표준산업분류 및 중앙생산물분류 향후 개정 전략 논의
- 국제표준직업분류 이행 및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 계획 논의
- 폐기물분류, 환경산업 및 에너지상품 분류 개발과정 논의

2

회의 일정

구 분	월 일	시 간 대	주요내용
1일차	9.1.(화)	09:00-09:30 10:00-10:15 10:30-11:00 11:15-12:30 14:00-16:15 16:15-17:00	등 록 개 회(개회사, 의제채택) 2007년 전문가회의결과 이행현황 검토 국제표준산업분류 이행가이드 검토 국제표준산업분류 및 중앙생산물분류 세부설명서 검토 국제생활시간활용조사 활동분류 개선 및 이행 현황 검토
2일차	9.2.(수)	09:30-10:30 10:30-11:30 11:30-12:30 14:00-17:00	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 계획 논의 국제건강계정분류 개정 경과 검토 국제표준직업분류 이행방안 논의 국제표준산업분류 및 중앙생산물분류 이행도구 개발 및 향후 개정 계획 논의
3일차	9.3.(목)	09:30-12:30 14:00-15:00 15:00-16:00 16:00-17:00	폐기물분류 개발 검토 자원관리지출 분류 개발 검토 환경산업 정의 논의 국제표준에너지상품분류 개발 검토
4일차	9.4.(금)	09:30-12:30 14:00-15:30	국제표준교육분류 검토 향후 전문가그룹 활동 및 역할 논의

【 9월 1일 화요일】

1. 2007년 전문가회의결과 이행현황 검토

- 2007년 전문가회의에서 도출된 유엔통계처의 분류업무 이행현황
 - 국제표준산업분류(ISIC) 3.1과 4.0의 연계표 작성(완료)
 - 국제표준산업분류 및 중앙생산물분류(CPC) 세부설명서 개발(초안완료)
 - 국제표준산업분류 이행가이드 개발(초안완료)
 - 중앙생산물분류 2.0과 목적별지출분류(COICOP)의 연계표 작성(진행 중)
 - ISIC 및 CPC 이행관련 지역워크숍 개최(진행 중)
 - 상품용도분류(BEC)의 확장 및 업데이트를 위한 첫 단계로 상품용도 분류의 주된 적용 범위 검토(검토 필요)
 - 동 전문가그룹은 상품용도분류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 및 수요를 고려하여 동 분류의 개발에 대한 검토과정을 재개하는데 동의
 - 동 분류에서의 서비스부문 포함 여부 및 적용 현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세부적인 작업 진행
- ※ 호주, OECD, 오만 필리핀 전문가 대표들이 상기 검토 작업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기로 합의

2. 국제표준산업분류 이행가이드 검토

- 국제표준산업분류 이행가이드(초안)에 다음의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내용 추가 권고
 - 국제비교성, 국민계정, 지역통계, 가구 및 산업통계 등과의 연관성
 - ISIC 4.0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및 편익 분석
 - ISIC 4.0의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

- 분류 사용자 목록 추가
- Business Register(BR)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(household)단위(예: 소규모 단위사업체)의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 가구단위를 코딩 및 백캐스팅(backcasting)하는 방안

3. 국제표준산업분류 및 중앙생산물분류 세부설명서 검토

- 동 전문가그룹은 상기 세부설명서의 전반적인 구조 및 형식에 동의
- 동 세부설명서 3장 및 4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찰사항 발견
 - 국민계정(SNA)에서 사용되는 단위(unit)의 정의와 차이가 있으므로 두 정의를 조율하는 방안 필요
 - 3.1장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체의 관점으로만 작성되어 있으므로 가구(household)의 관점도 반영 필요
 - 용어의 일관성 유지 필요(예: employees, members)
- 동 세부설명서 5장 및 6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찰사항 발견
 - 5.2장에 정보통신기술(ICT)제품 및 산업의 정의를 참조
 - OECD에서 작업하고 있는 ICT의 개념을 기반으로 ICT산업과 관련된 이슈 포함 필요
 - 신산업(예: 바이오기술산업)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이슈 포함 필요
 - 용어의 일관성 유지 필요(예: employees, members)
 - ISIC 적용과 관련하여 가구조사(household survey)는 별도의 적용 사례가 아니라 ISIC의 기본적인 적용의 한 부분이므로 6.4장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것 보다, ISIC의 일반적인 적용기준을 설명하는 3.1장에 포함되어야 함
- 동 세부설명서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기존의 원칙을 기준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경우, 동 세부설명서의 세부적인 지침을

따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동 전문가그룹도 인식

- 부가가치 및 활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은 수직적 결합인 활동의 경우,
 - ISIC 3.1에서는 전단(upstream)의 활동보다는 후단(downstream)의 활동을 기본적으로 주된 활동으로 간주
 - ISIC 4.0에서는 후단(downstream)의 활동보다는 전단(upstream)의 활동을 기본적으로 주된 활동으로 간주
- 상기 예제와 같이 짧은 시간동안 기준 및 원칙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함
- 따라서, 동 세부설명서 최종 본 작업과 검토과정을 병행적으로 동시에 진행하여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

○ 동 세부설명서의 최종 본을 2009년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

4. 국제생활시간활용조사 활동분류 개선 및 이행 현황 검토

- 동 분류가 국제경제사회분류군(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)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, 개념적인 원칙, 적절성, 정확성, 관리기관(custodian), 다양한 개발수준에 있는 국가들에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상기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함

【 9월 2일 수요일 】

1. 국제질병사인분류(ICD) 개정 계획 논의

- WHO산하에 ICD-11 개정 조정분과를 설치하고 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학계 및 통계 공동체(statistical community)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

- 조류 독감,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출현으로 새로운 사망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필요성 증가
- 전문가들의 검토를 위하여 ICD-11의 초안은 2010년 5월 10일에 발표할 예정

2. 국제건강계정분류 개정 경과 검토

- 동 분류는 건강과 관련된 재원이 어디서 오고, 어디로 가며 어떤 종류의 서비스 및 재화가 구매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국가보건정책입안에 중요한 정보 제공
- 제공된 건강서비스의 “품질”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를 반영 할 것을 동 전문가그룹에서 제의
- 동 분류의 전반적인 구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동 분류와 ISIC 및 CPC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동 전문가 그룹이 의견을 낼 수 없음
- 2010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동 전문가그룹이 검토하는 것이 목표

3. 국제표준직업분류(ISCO) 이행방안 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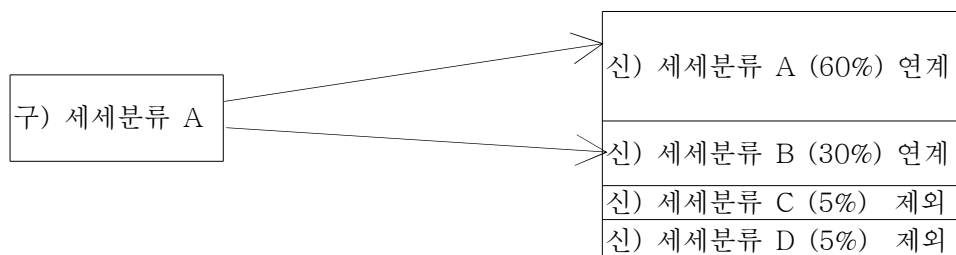
- 2007년 12월에 개정된 ISCO의 이행을 위한 워크숍 및 매뉴얼 개발의 시급성에 동의
- ISCO 이행을 위한 워크숍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워크숍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합의
- 국제종사상지위분류(ISCE)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
 - 국제노동기구(ILO)와 동 전문가그룹이 개정의 필요성 검토를 진행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ILO는 이를 위한 재원이 부족한 이유로

빠른 시일 내에 동 검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 표명

4. 국제표준산업분류 및 중앙생산물분류 이행도구 개발 논의

- 홈페이지에서 구동되는 부호코딩 방식(Web-based coding tool) 이외에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여 구동 될 수 있는 독립적인 (stand-alone coding tool)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의 필요성 강조
 - 캐나다 및 뉴질랜드에서 개발한 독립적인 코딩 소프트웨어가 좋은 벤치마킹 사례이며 유엔통계처는 이들 사례를 토대로 국제코딩 도구 개발에 착수할 예정
- 최근 개정된 분류간의 연계표 작성이 필요하며 다음 분류간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시작할 것을 권고
 - CPC2-COICOP, CPC2-COFOG¹⁾, CPC2-BEC²⁾
- ※ 이미 개발된 CPA-COICOP 연계표를 활용하여 상기 작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
- 각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화된 연계표(simplified correspondences tables)를 작성하는데 논의
 - 단순화된 연계표 작성시 적용되는 “단순화”의 기준은 국가별 상황에 맞게 설정할 것을 권고

< 단순화 사례(5% 이하 제외 기준 적용 시) >



1) 정부기능분류
2) 상품용도분류

5. 국제표준산업분류 및 중앙생산물분류 향후 개정 계획 논의

- 개정 작업의 비용과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개정 주기에 대하여 논의
 - 5년 주기로 분류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되 분류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경(change)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
 - 분류의 큰 변경(예: 개정)은 적어도 10년 주기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에 합의. 일부 전문가 대표들은 15년 변경주기 제의
- 분류의 변경(change), 업데이트(update), 개정(revision) 등의 개념 및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, 개정 절차 등이 문서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
 - 호주, 프랑스, 뉴질랜드, 미국 전문가 대표들이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동 전문가그룹에 보고하기로 합의

【 9월 3일 목요일 】

1. 폐기물분류 개발 검토

- London Group이 폐기물의 물리적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환경계정과 연계하여 폐기물 분류 개발에 대하여 논의
 - CPC와 유럽폐기물분류(EWC-STAT)을 병행 사용하는 것을 제의
 - ※ 폐기물의 물리적 흐름을 분류할 수 있는 단일 분류를 사용하는 것이 선호되나 폐기물의 발생 출처 및 사용용도를 CPC에서는 알 수 없음
- 일부 전문가대표들은 EWC-STAT에서 설계된 세부적인 수준의 폐기물 데이터가 현실적으로 수집가능한지 우려 표명
- 시간 제약상 EWC-STAT을 잠정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하고 6개월

이내에 다시 검토하여 수정안을 작성하기로 합의

2. 자원관리지출 분류 개발 검토

- London group이 환경보호활동지출분류(CEPA)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원관리지출분류(CRUMA) 초안에 대하여 논의
 - London Group이 제안한 CEPA와 CRUMA의 통합분류 개발에 동의
 - CRUMA의 적용사례가 현재 이탈리아로 제한되어있는 만큼 여러 국가에 적용하여 실험해 볼 필요 있음
 - CRUMA와 ISIC 3과의 연계가 가능하므로 ISIC 4와의 연계 작업도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음
 - 모든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활동을 CRUMA 13(화석에너지 사용 및 관리) 이하에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
 - ※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개발은 모두 온실가스배출 감축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CEPA 1(대기 및 기후 보호)의 분류 방식에 따라 분류할 것을 권고
- 동 분류가 국제경제사회분류군(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)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동 전문가그룹이 세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함

3. 환경산업 정의 논의

- CRUMA 및 CEPA에 근거하여 유럽통계처에서 작성한 “환경재화 및 서비스 매뉴얼”를 토대로 환경산업의 범주에 대하여 논의
 - 생산자의 생산활동이 환경적인지 비환경적인지 그 의도를 (intention of a producer) 파악하기가 어려움
 - 최종 수요제품(final demand product)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어 환경부품(environmental parts)들은 상대적으로 제외되어있음
- 유엔통계처, 세계은행, OECD, IMF, 유럽집행위원회에서 개발 중인

환경 및 경제회계(Introduction to the system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, SEEA)의 개념적인 이슈 및 각 부문별 정의는 상기 언급한 문제 및 CRUMA의 진행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

4. 국제표준에너지상품분류 개발 검토

- Oslo Group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제표준에너지상품분류에 대하여 논의
 - 동 분류의 개발이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동 분류의 범위와 목적이 좀 더 명확하고 세분화 되어야 함
 - 동 분류의 분류단위(unit)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
 - ※ 에너지생산의 투입물, 산출물, 또는 생산과정이 분류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음
 - 국민계정 및 환경계정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목적 분류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동감
 - 동 전문가그룹이 Oslo Group의 동 분류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 및 지원하기로 합의

【 9월 4일 금요일 】

1. 국제표준교육분류 검토

- 유네스코(UNESCO)가 진행하고 있는 국제표준교육분류(ISCED) 개정 검토 일정에 대하여 논의
 - 2010년에 UNESCO가 준비한 개정검토 사항에 대한 범세계적 협의(world-wide consultation) 및 의견수렴 완료
 - 2011년 UNESCO 정기총회에서 최종 개정안 제출

2. 향후 전문가 그룹 활동 및 역할 논의

- 동 전문가그룹의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, 회의소집 빈도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안 논의. 동 사안의 복잡성과 제한된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술소분과를 설치하여 운영전반에 관한 검토안 (proposal on governance)을 작성하는데 합의
 - 동 전문가그룹에게 요구되는 업무요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동 전문가그룹의 역할에 대한 검토 포함
 - 동 전문가그룹 내에 의사결정 권한은 없고 일상행정, 업무배분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분과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
- 동 전문가그룹 각 국가별 대표는 해당 주제의 전문가보다는 분류전문가가 대표로 참여하는 것이 적합
- 이번 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업무수요를 정리하여 동 전문가그룹의 2009년/2010년 업무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공람하는데 동의

- 동 회의는 국제경제사회분류의 개정, 개발 등 전체적인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분류전문가들이 참석한 회의로 분류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하여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음
- 국제경제사회분류와 관련한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전문가회의인 만큼, 우리나라의 국익과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필요 있음
-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분류업무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으며, 각국에서 체계적으로 양성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, 우리 청에서도 이와 같이 분류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국제사회에 진출할 필요가 있음